

みんなくりポジトリ

国立民族学博物館学術情報リポジトリ National Museum of Ethnology

展示における資料の悉皆的拡張と生活空間再現の可能性

メタデータ	言語: jpn 出版者: 公開日: 2009-04-28 キーワード (Ja): キーワード (En): 作成者: 笹原, 亮二 メールアドレス: 所属:
URL	https://doi.org/10.15021/00001861

展示における資料の悉皆的拡張と生活空間再現の可能性

笹原 亮二

モノを展示する、あるいは展示されたモノを見るという行為を果たしてどのように理解し、実践するのが最も妥当か。それは、博物館において展示の製作に関わったり、展示について考えたり、書いたり話したりする際に、いつも筆者の脳裏に去来する問題である。その解決にあたっては、筆者は基本的に、具体的な展示の製作を行うことを通じて、展示する側と展示される対象に関わる側と展示を見る側の三者間で意見を交わしながら、よりよい形を模索していく以外にないであろうと考えている。しかし、今回「2002年ソウルスタイル——李さん一家の素顔のくらし」展の制作に実行委員会の一員として参加し、実際にできあがった展示を見ることで、新たに考えるようになった問題があったので、今後の筆者の展示製作の際の覚悟という意味を込めて、それを書き留めておきたい。

我々は展示というと、展示する側が、展示される対象に関する何らかの情報や主張や認識を、展示を見る側に伝達する行為と考えがちではないだろうか。つまり、展示は一種の「情報伝達のメディア」（中村 1998: 14）というわけである。従って、実際に展示を製作する際にはわかりやすい展示、即ち、展示する側が提示する情報や主張や認識が、正確かつ効率よく見る側に伝わるのが目指され、その実現が図られる。しかし、実際の展示を巡る状況は「展示＝メディア論」では決して理解が十分ではない。例えば、実物資料は常に多様な見方を許容する多義性を有しているもので、それを基本的な要素として構成される展示は程度の差はあっても多義的とならざるを得ない。それに加えて、見る側は通常「自らの体験領域に対象を引きずり込んで対象を常民的に歪曲して理解する」（篠原 1988: 33）強い傾向を有する。いくら様々な技術を駆使して展示のメディアとしての精度を向上させ、伝達能力を強化したとしても、展示する側の意図通りには働かない不確実性を多少なりとも有する表現から展示が完全に脱することは、原理的に不可能である（笹原 2000: 198）。その結果、展示を見る際は、「展示する人間の意図と予想を越えて、来館者は考える、あるいは考えないのであって、ふつう必ずしも主催者側のコントロールに従うとは限らない」（榎 1998: 52）という事態に至る。このことは、実際に展示を製作するにあたっては、展示する側と見る側の認識が一致しないのが常態であることを踏まえて展示のあり方を考える、つまり、展示する側が予め用意した内容を見る側に正確に伝達するという「展示＝メディア論」とは異なるかたちの展示のあり方を想定する必要があることを示している。

そこで注目されてくるのが「2002年ソウルスタイル」展における李家の再現展示である。これは、実際にソウルにあった李家のアパートの様子を再現した展示であった。再現と

はいうものの、展示という性格上間取りや壁面等に変更が加えられ、アパート内にあった全ての物品も漏れなく展示されたわけではないので、厳密に言えば実際のアパートの内部をそっくりそのまま再現したものとはなっていない。しかしその展示は、緻密な生活財調査の成果と可能な限り徹底的に行われた実物資料の収集に基づき、従来の展示では見られなかった展示内容及び資料の大幅な拡張が行われ、家具や家電製品から衣類、「一見無意味な領収書やメモの類」(佐藤 2002: 105)に至るまで実に様々なモノが、李家のアパートを模した展示空間内に配置された。その結果、生活の場が容易には全体が把握できないほど多種多様で大量のモノの群れから構成されているという、李家の生活の実態の一側面を十二分に示すことに成功した。また、その展示は、展示を見る人々が、あたかも李家を訪れるかのように展示空間内に入り込み、台所の冷蔵庫や寝室の箆笥を開けて自由に中のモノを見ることができるよう工夫されていて、見る側それぞれの興味に応じてモノを選択して見る事が可能となっていた。

「2002年ソウルスタイル」展は、こうした展示資料の悉皆的な拡張と見る側の展示空間への主体的な参入を促す仕掛けによって、展示を見る人個々の展示に対する認識や理解の構築における自由な裁量を、相当程度許容するかたちを実現していたといえる。こうした見る側の多義的な解釈を保証する柔軟性を備えた展示のありようは、展示する側と見る側の認識や理解が一致することを必ずしも前提としていないということで、「展示＝メディア」論とは異なる一つの展示のあり方、展示の可能性を示しているとも考えられる。可能であろう。

しかし、そこで問題が残る。それは、見る側は展示を、それぞれの興味に従って全く自由に理解しても構わないのか、展示や展示されたモノには読みとらなくてはならない意味や内容は全く存在しないのかということである。その問題は、展示される対象がどういう性格のものかということと関わっている。「2002年ソウルスタイル」展の場合、再現された室内空間や展示されたモノは、元々ソウルの李家に実際にあったものである。つまり、展示や展示されたモノはそれのみで完結している独立した世界を形成しているのではなくて、2002年当時の、あるいは過去から連綿と繋がる韓国社会やソウルの生活、あるいは李家という家族や個々の人間との関わりにおいて存在していたものであり、従って、それらを見て理解する際には、それらの背後に韓国社会、ソウル社会、李家の家族やその生活が実際に存在していることを十分考慮する必要があるのである。それは、展示や展示されたモノの履歴をきちんと踏まえる必要性と言い換えてもいいかも知れない。展示や展示されたモノを、現実の社会や生活現場に空間的・時間的に開かれたテキストとして読み解くべきであるという制限が、大まかな枠組みとして展示を見る側の理解や認識の自由裁量には存在してい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実際の「2002年ソウルスタイル」展では、こうした点に関して、展示に先立つ生活財調査の際に、個々のモノに関する家人からの聞き取り調査によって情報を蓄積し、「そのひとつひとつに持ち主の込めた意

味を明らかにしてゆく」(佐藤 2002: 105) というかたちで、モノを読み解く際の枠組みが設定されていたようであった。

こうした理解の枠組みが実際の展示でどのようなかたちで提示されていたのか、筆者には明確に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しかし、仮にそれがきちんと提示され、展示を見る側の準拠枠あるいは文脈として機能したとしても、未だ問題は残る。それは、佐藤浩司も調査の際には家人が「ふだん意識もしなかった些末なものについてまで質問に答えねばなら」なかった(佐藤 2002: 105) と述べているように、人々は自らの周囲のモノすべてについて明確に意識し、それを言語によって表現し得るとは限らず、とすれば、元々意識されず、語られなかったモノについて敢えて聞き取った情報は、そのモノの履歴とは単純にいえないのではないだろうかということである。その場合その情報は、モノについて人々が後日反省的に認識した結果の意味付けとなり、そうしたモノの意味に基づいて明らかにされるのも、人々が反省的に回顧した結果与えられた自らの生活に対する意味付けとなる。それはそれで興味深い問題ではあろうが、人々が実際に営んでいる生活の実際のありようを明らかにすることとは問題の次元が異なってくる。我々は日常生活の現場においては、特別に意識したり、明確な言語による定義や説明を行ったりしなくても、モノを使用して生活を営むことができるからである。

生活の現場に存在していながら、人々に意識されないモノ、語られないモノは、展示において生活空間を細部まで再現すればするほど、多種多様で大量なモノを選択せずに展示すればするほど増加する。それを考えると、「2002年ソウルスタイル」展のような展示における資料の悉皆的拡張と生活空間再現という方法の有効性は、所有者にも意識されないモノ、語られないモノさえも展示することを可能とし、それによって、人々の自己認識の範疇から外れてしまう部分をも含むかたちで営まれている生活の実践的なありようを対象化して提示する可能性が生まれるという点にあ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そう考えるならば、こうした展示の方法は、生活財調査のような緻密な生活現場に関する調査の成果をまとめ上げる際の一つの方法として、ある種の民俗誌的表現としての可能性を秘めているといえるかも知れない。

文 献

榎陽介

1998 「展示としての葬送——博物館の試みから」日本民俗学会編『民俗世界と博物館——展示・学習・研究のために』pp.49-58 雄山閣出版。

笹原亮二

2000 「民俗学と民俗展示——『民俗世界と博物館——展示・学習・研究のために』を巡って」端信行編『国立民族学博物館調査報告 16 新しい展示技法の開発と子供博物館のコミュニケ

ーションに関する研究』pp.192-209, 国立民族学博物館。

佐藤浩司

2002 「生活財調査 ものはなにをかたるか」朝倉敏夫・佐藤浩司編『2002年ソウルスタイル——李さん一家の素顔のくらし』pp.104-105, 千里文化財団。

篠原徹

1988 「不思議の場としての博物館」岩井宏実編『民俗展示の構造化に関する総合的研究』pp.25-33, 国立歴史民俗博物館。

中村ひろ子

1998 「民俗を展示するということ」日本民俗学会編『民俗世界と博物館——展示・学習・研究のために』pp.14-20, 雄山閣出版。

전시에 있어서 자료의 남김없는 확장과 생활공간 재현의 가능성

菅原 亮二

사물을 전시하는 행위, 또는 전시된 사물을 보는 행위를 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까. 그것은, 박물관에 있어서 전시의 제작에 관여했든지, 전시에 대해 생각할 때에, 전시에 대해 쓰고 생각하는 때에, 언제나 필자의 머리 속을 오락가락하는 문제이다. 그 해결에 있어, 필자는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전시의 제작을 수행하는 것을 통해, 전시하는 쪽과 전시되는 대상에 관계되는 쪽, 그리고 전시를 보는 쪽의 삼자간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보다 좋은 형태를 모색하여 가는 것 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의 「2002 년 서울 스타일——이선생님댁의 살림살이를 있는 그대로」 전의 제작에 실행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참가하여, 실제로 완성된 전시를 보는 것을 통해, 새롭게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있었으므로, 이차 필자의 전시제작을 위해서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 점을 적어보고자 한다.

우리들은 전시라고 하면, 전시하는 쪽이, 전시되는 대상에 관한 어떤 정보나 주장, 인식을, 전시를 보는 쪽에 전달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을까. 즉, 전시는 일종의 「정보 전달의 미디어」(中村 1998:14)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전시를 제작할 때에는 알기쉬운 전시, 즉 전시하는 쪽으로 전시되는 정보나 주장, 인식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보는 쪽에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그 실현을 노린다. 그러나, 실제의 전시를 둘러싼 상황은 「전시=미디어론」으로서 절대로 이해가 충분치 않다. 예를 들어, 실물자료는 항상 다양한 견해를 허용하는 다의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것을 기본적인 요소로서 구성되는 전시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다의적이 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보는 쪽은 통상 「자기 스스로의 체험영역의 대상을 끌어들이 대상을 평범한 수준으로 왜곡하여 이해하는」(菅原 1988: 33) 강한 경향을 지닌다. 아무리 다양한 기술을 구사하여 전시 미디어로서의 정도(精度)를 향상시켜 전달능력을 강화한다고 해도, 전시하는 쪽의 의도대로는 되지 않는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지닌 표현에서 전시가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菅原 2000: 198). 그 결과, 전시를 볼 때, 「전시하는 인간의 의도와 예상을 넘어서서, 관람자는 생각하거나, 혹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며. 보통, 반드시 주최자 쪽의 컨트롤에 따른다고는 할 수 없다」(榎 1998: 52) 라고 하는 사태에 도달한다. 이점은, 실제로 전시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전시하는 쪽과 보는 쪽의 인식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인식하고, 전시의 모습을 생각하는, 즉, 전시하는 쪽이 미리 준비한 내용을 보는 쪽에 정확하게 전달한다고 하는 「전시=미디어론」과는 다른 형태의 전시의 모습을 상정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이 「2002년 서울스타일」전에 있어서 이선생 일가의 재현 전시이다. 이것은, 실제로 서울에 있었던 이선생 일가의 아파트의 모습을 재현한 전시였다. 재현이라고는 해도, 전시라는 성격상, 아파트의 구조나 벽면 등에 변형이 필요했고, 아파트 안의 모든 물품이 빠짐없이 전시된 것은 아니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실제의 아파트의 내부를 그대로 재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전시는, 치밀한 생활재조사의 성과와 가능한 한 철저하게 행해진 실물자료의 수집에 근거하여, 종래의 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전시내용 및 자료의 큰 폭의 확장이 이루어져, 가구나 가전제품부터, 의류, 「어찌보면 무의미하게 보이는 영수증이나 메모 등의 종류」(佐藤 2002: 105)에까지 실로 다양한 사물들이, 이선생 일가의 아파트를 모방한 전시공간 안에 배치되었다. 그 결과, 생활의 장소가 용이하게는 전체가 파악되지 않을 정도로 다종 다양하고 대량의 사물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선생 일가의 생활 실태의 일면을 충분히 나타내는 것에 성공했다. 또한, 그 전시는, 전시를 보는 사람들이, 마치 이선생의 집을 방문한 것처럼 전시공간 안으로 들어가, 부엌의 냉장고나 침실의 서랍장을 열고 자유롭게 안에 있는 사물을 보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보는 쪽의 각자의 흥미에 맞게 사물을 선택하여 보는 일이 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2002년 서울스타일」전은, 이러한 전시자료의 남김없는 확장과, 보는 쪽의 전시공간에 대한 주체적인 참가를 유발시키는 고안장치에 의해, 전시를 보는 개개인의 전시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구축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재량, 상당히 허용하는 형태를 실현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쪽의 다의적인 해석을 보증하는 유연성을 마련한 전시의 형태는, 전시하는 쪽과 보는 쪽의 인식과 이해가 일치하는 것을 반드시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시=미디어론」과는 다른, 어떤 한 전시의 형태, 전시의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문제가 남는다. 그것은, 보는 쪽이 전시를, 각자의 흥미에 따라 완전히 자유롭게 이해해도 정말 상관없는 것인가, 전시나 전시된 사물에는 읽혀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의미나 내용이 정말로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그 문제는, 전시된 대상이 어떠한 성격의 사물인가라는 것에도 관련된다. 「2002년 서울스타일」전의 경우, 재현된 실내공간과 전시된 사물은, 원래 서울의 이선생의 집에 실제로 있던 것이다. 즉, 전시나 전시된 사물은 그것만으로 완결되고 독립된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002년 당시의, 혹은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 온 한국 사회나 서울의 생활, 또는 이선생 가족이나 개개의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존재하고 있던 사물이며, 따라서 그것들을 보고 이해할 때에는, 그것들의 배후에 한국사회, 서울 사회, 이선생 가족과 그 생활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전시나 전시된 사물의 이력을 확실히 고려할 필요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전시나 전시된 사물을, 현실의 사회나 생활현장에

공간적, 시간적으로 열려진 텍스트로서 읽어내야 한다고 하는 제한이, 하나의 커다란 틀로서, 전시를 보는 쪽의 이해와 인식의 자유재량에는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실제의 「2002 년 서울스타일」 전에는, 이러한 점에 관련하여, 전시 이전에 이루어진 생활재조사에서, 개개의 사물에 대해 가족으로부터 질문조사에 의해 정보를 축적하고, 「그 하나 하나의 주인이 담아둔 의미를 밝혀 나가는」(佐藤 2002: 105) 형태로, 사물을 읽어내는 때의 틀이 설정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이해의 틀이 실제의 전시에 어떠한 형태로 제시되어 있었는가, 필자에게는 명확히 인식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확실히 제시되고, 전시를 보는 쪽의 준거 틀 혹은 문맥으로서 기능했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문제는 남아 있다. 그것은, 佐藤浩司조차도 조사 때에는 가족들이 「평소에는 의식도 하지 않았던 사소한 사물들에 대해서까지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안되었다」(佐藤 2002: 105) 라고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주위의 모든 사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식하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한다면, 원래 의식되지 않고, 이야기되지 않았던 사물들에 대해서 억지로 질문하여 얻어낸 정보는, 그 사물의 이력이라고, 단순히 말할 수는 없는 것은 아닐까라는 점이다. 이 경우, 그 정보는, 사물에 대해 사람들이 후일 반성적으로 인식한 결과의 의미부여가 되고, 그러한 사물의 의미에 근거하여 밝혀진 것들도, 사람들이 반성적으로 회고한 결과 부여된 자신들의 생활에 대한 의미부여가 된다. 그것은 그것으로 흥미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꾸려 가는 생활의 실제의 모습을 밝혀내는 것과는 문제의 차원이 달라진다. 우리들은 일상생활의 현장에 있어서는, 특별히 의식하거나, 명확한 언어에 의해 정의하거나 설명하거나 하지 않고서도, 사물을 사용하고 생활을 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생활의 현장에 존재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의식되지 않는 사물, 이야기되지 않는 사물은, 전시에 있어서 생활공간을 세부까지 재현하면 할수록, 다종다양하며 대량의 사물을 선택하지 않고 전시하면 할수록 증가한다. 그것을 생각하면, 「2002 년 서울스타일」 전과 같은 전시에 있어서 자료의 남김없는 확장과 생활공간 재현이라는 방법의 유효성은, 소유자에게도 의식되지 않는 사물, 이야기되지 않는 사물까지도 전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것에 의해, 사람들의 자기인식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부분까지도 포함하는 형태로 꾸려지고 있는 생활의 실천적인 모습을 대상화하고 전시하는 가능성이 태어난다는 점에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러한 전시의 방법은, 생활재 조사와 같은 치밀한 생활현장에 대한 조사의 성과를 정리할 때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어떤 종류의 민속지적 표현으로서의 가능성을 숨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문헌

榎陽介

- 1988 「展示로서의葬送——博物館의 시도로부터」日本民俗学会編『民俗世界와博物館——展示・学習・研究를 위해』pp.49-58, 雄山閣出版.

笹原亮二

- 2000 「民俗학과 民俗展示——『民俗世界와博物館——展示・学習・研究를 위해』를 둘러싸고」端信行編『国立民族学博物館調査報告 16 새로운 展示技法의 開發과 어린이 博物館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研究』pp.192-209, 国立民族学博物館.

佐藤浩司

- 2002 「生活財調査 사물은 무엇을 말하는가」朝倉敏夫・佐藤浩司編『2002년 서울스타일——이전생년대의 살림살이를 있는 그대로』pp.104-105, 千里文化財団.

篠原徹

- 1988 「신기한 장소로서의 博物館」岩井宏実編『民俗展示의 構造化에 관한 綜合的研究』pp.25-33, 国立歴史民俗博物館.

中村ひろ子

- 1988 「民俗을 展示하는 일」日本民俗学会編『民俗世界와博物館——展示・学習・研究를 위해』pp.14-20, 雄山閣出版.